

코로나·한파 이겨내는 이웃돕기 온정 '훈훈'

KT전남전북본부, 식품꾸러미 500개 신안 이룸없는 천사, 200만원 기부 담양군, 남선이앤씨 연탄 1만장 등

코로나19와 강추위에 이종고를 겪는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나눔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KT전남전북광역본부, 광주시도목직공무원상조회회 기부금 및 물품 기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KT전남전북광역본부에서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2500만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 500개를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고추장, 된장, 즉석식품 등 13종으로 구성된 사랑의 식품 꾸러미는 소외계층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기탁식에 앞서 지난 12월 23일 자원봉사센터에 전달됐으며, 관내 사회복지관, 영구임대주택 입주 주민 등에게 지원됐다.

KT전남전북광역본부 서창석 전무는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꾸러미를 마련했다"며 "KT는 앞으로도 국민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사회공헌활동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기술을 제공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청 토목직 공무원 253명으로 구성된 광주시도목직공무원상조회회도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광주시도목직공무원상조회회장 김재식 도시계획과장은 "상조회원들이 송년모임 대신 의미있는 나눔을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



담양군은 13일 "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2021 나눔 캠페인'에 지역사회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남선이앤씨(주)에서 최근 연탄 1만장을 기탁했고 죽공예할인매장, 담양군 흑염소협회, 담양향교에서 각각 100만 원을 기탁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소중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름 없는 천사의 기부도 눈길을 끌었다.

신안군은 지난 12일 한 익명의 기부자가 압해읍 신안군청을 찾아 "어려운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후원자는 "자으면 무한의 다리를 방문했다"면서 신문으로 공짜 싸넨 200만원을 전달한 뒤 사라졌다.

후원자는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말하는 신안군청 이웃돕기 담당자에게 손사래를 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따뜻하게 사용해 달라"는 말만 남긴채 자리를 뒀다.

군은 "한파로 주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안타까웠다"는 익명의 기부자 뜻에 따라 전달받은 후원금을 신안군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신안=이상선 기자 ssllee@

김선희 교수·이분희 지도자, 전남생활체육 발전기여 문체부장관상

김선희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와 이분희 광양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최근 2020년도 생활체육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선희 교수는 스포츠클럽 운영 및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에 공헌했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원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스포츠클럽과 연대한 생활체육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생활체육 관련 강연을 통해 지도자교육 및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분희 지도자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20년 이상 근속과 함께 '생활체육의 생활화' 및 '1인 1종목 생활체육 즐기기'를 지향점으로, 광양시 체육 발전에 헌신했다. 장애성인 체육활동 지도, 장애청소년 레크레이션 지도 등 장애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유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왼쪽부터 김선희 교수, 김재무 전남체육회장, 이분희 지도자. (전남도체육회 제공)

서구청, IT 분야 일자리창출 사업 청년 정규직 채용 업무약정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13일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IT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청년 정규직 채용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광주 서구청 제공)

농협 전남본부, 신안 임자도 등 농업용 난방유 공급 나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는 13일 신안 임자도를 방문해 농업용 난방유 공급에 나섰다. 최근 한파와 폭설로 난방유 등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남본부는 도서지역 공급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지스트 이용구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이용구 기계공학부 교수가 2020년 인공지능 경쟁력 혁신을 위한 산업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용구 교수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표준을 제정했고,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자율주행부문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18개 사업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용구 교수팀은 도로교통법, 도로



법, 행정안전부령을 고려해 TTA 표준번호 TTA.KO-10.1208, "자율주행 자동차의 객체인식 기술에 필요한 도로상 데이터의 객체 분류 체계"를 제정했다.

이용구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자율주행차 품질지원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최희종 기자 chae@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양코르 카이로스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스포터	00 바람피면 죽는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50 날아라 개천황(재)
[1]	00 다큐 온(재) 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시사간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분 좋은 날(재)	00 특목 보험설계(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 2 15 캐치 티니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건강한 집 세계의 에코하우스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어쩌다 마주친 그 개(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남자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펫 비타민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바람피면 죽는다	20 다큐플러스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땅만 빌리지	20 UHD특집 다큐멘터리 건축의 시간	35 어쩌다 마주친 그 개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글로벌 파워 뮤지션발굴 프로젝트 ASIAN TOPBAND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이수 픽 쌤과 함께(재)	15 통합뉴스룸 ET(재) 45 사랑의 가족(재)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건강한 집 세계의 에코하우스	20 나이트라인 50 닥터 365 55 한국의 발견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형사 가제트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07:15 로보카 폴리	12:25 지식채널e	19:00 아바타-아이들의 전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3:00 명의	19:45 다큐 잇!
08:00 당동댕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30 마법버스 타요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휘든지 뮤직박스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유럽 소도시 기행
09:00 꼬미와 베베	15:45 레인보우 루비	-그들이 사는 세상 스페인>
09:15 또깨비 가족	16: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09:30 물랑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지금 살만한 4부 난 네게 반했어>
09:40 우리집 유치원	16:30 당동댕 유치원(재)	21:50 파란만장
10:30 한국기행(재)	16:50 해오와 해오	22:45 가족이 맞습니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4일(음 12월 2일 壬戌)

<p>36년생 이해득실을 떠나서 임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48년생 예기치 못한 길성이 비추면서 생기발달한 판도가 조성되리라. 60년생 상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72년생 배려는 곧 경제적 이익이 되어 돌아오리라. 84년생 마무리할 수 있는 계책이 절실하다. 96년생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친다. 행운의 숫자 : 31, 80</p>	<p>42년생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54년생 지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 될 것이다. 66년생 저울질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78년생 체면 차리다가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90년생 내키지 않으면 행할 이유가 없다. 02년생 근본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37, 84</p>
<p>37년생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9년생 활용하기에 편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61년생 차우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73년생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도량이다. 85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노파심을 떨쳐 버려도 되느니라. 97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7, 75</p>	<p>43년생 불가항력적인 구조가 설정될 것이니 받아들여라. 55년생 분수에 맞지 않으니 욕심 부려서는 아니 된다. 67년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79년생 위험 요소 유념하면서 주의해야 할 때다. 91년생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03년생 겉모습은 별로지만 실상은 양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78</p>
<p>38년생 주변의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 50년생 아무리 좋더라도 지나치다 보면 분명히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62년생 구색을 맞추다보면 효율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74년생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으니 귀를 기울여라. 86년생 반복될 수도 있는 구도여서 실망하기에 충분한 마당이다. 98년생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8, 90</p>	<p>32년생 일시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향심으로써 대하자. 44년생 단처가 될 만한 소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56년생 인식을 잘 해야 쉽게 적응할 수 있느니라. 68년생 소모적인 동세이니 집착을 떨치고 과감히 버려야만 한다. 80년생 이유 불문하고 함께해야 할 판도에 놓여 있느니라. 92년생 전도 양양하니 대단히 희망적이다. 행운의 숫자 : 38, 61</p>
<p>39년생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변경해도 무난하다. 51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성사시기가 쉬워진다. 63년생 향후의 달성 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75년생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87년생 동시 다발적으로 속출하여 당황할 수 있다. 99년생 진취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3, 74</p>	<p>33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45년생 단순화 시켜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57년생 지켜보고 있노라만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69년생 마무리를 잘못하면 헛수고만 할 뿐이다. 81년생 낙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93년생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29, 51</p>
<p>40년생 판이란 국면으로 전환 되지는 않았지만 여지는 있다. 52년생 좋은 말은 원래 듣기에 거부한 법이다. 64년생 기본적인 취지에 충실해야만 무리가 없다. 76년생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번거롭다. 88년생 대단히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날이다. 00년생 잡다한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추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14, 52</p>	<p>34년생 지나치다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46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58년생 미진한 점이 있다면 대중 넘겨라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밝혀야 하느니라. 70년생 투명하게 추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82년생 다 끝난 일이니 속히 미련을 버려라. 94년생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귀중한 기회를 갖는다. 행운의 숫자 : 09, 85</p>
<p>41년생 간절할 소원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 53년생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함께 하자. 65년생 단순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어중간하다면 아예 하지 않을만 못하다. 89년생 분위기나 겉모습에 현혹된다면 큰코 다칠 수도 있다. 01년생 주관적 추측이라면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92</p>	<p>35년생 기다렸던 바가 실망시키는 정황이다. 47년생 안정 제도로 진입하게 되는 길목에 서 있다. 59년생 외관에 치중하다보면 내실이 취약해진다. 71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할 일을 미루지 마라. 83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 지 말아야 할 것이다. 95년생 색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니 겁안하고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23, 53</p>